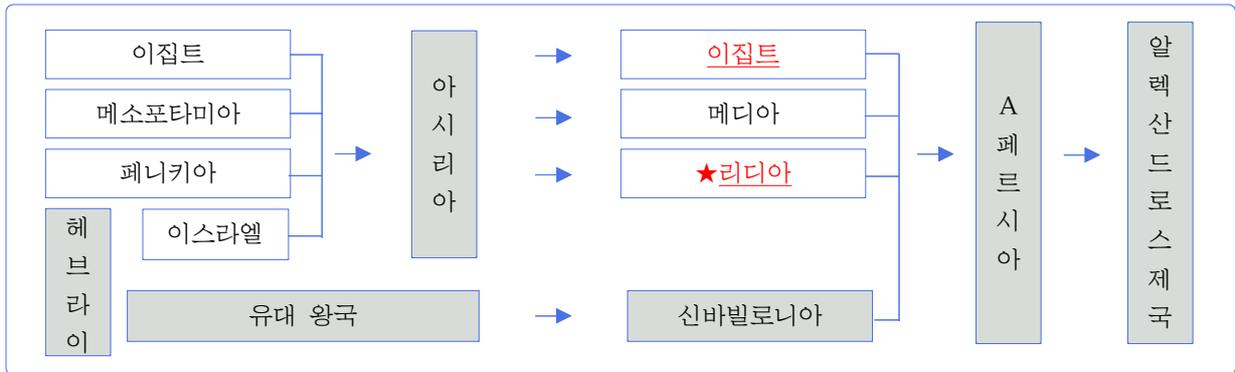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01. ★아시리아(기원전 671 ~ 기원전 609)

- 수도 니네베(Nineveh)
- 철제 무기와 공성용 망치, 철갑 전차로 무장한 기병을 앞세워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 통일
- 정복지에 총독 파견, 군용 도로와 교역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 통치 실시
- 니네베 왕립 도서관 건립, 지구라트 건설
- 강압적인 통치 방식 → 신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수도를 점령(기원전 612)한 이후 멸망

0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기원전 559 ~ 기원전 330)

- 수도 수사(Susa)
- 키루스 2세(재위 기원전 559 ~ 기원전 529)
 - :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바빌로니아 정복(기원전 539) 등 서아시아 재통일(기원전 545)
 - :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포용 정책 실시

나는 키루스이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 신(아후라 마즈다)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
 - 키루스의 칙령(기원전 539, 『수능 특강』 p.48)

- 캄비세스 2세(재위 기원전 529 ~ 기원전 522)
- 다리우스 1세(재위 기원전 522 ~ 기원전 486)
 - : 반란 평정,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식민지 정복
 - ↳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 확보 →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 : 페르세폴리스 건설(기원전 518 ~)
 - :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정비
 - ↳ 20여 개 속주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왕의 눈, 왕의 귀 등 감찰 관리를 파견해 총독 감시
 - ↳ 왕의 길(수사 ~ 사르디스) 건설, 역참(驛站) 정비
 - : 화폐와 도량형 정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의 최초 건설
 -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 ↳ 마라톤 전투 패배(기원전 490) → 그리스 원정 실패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교리
 - :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
- 속주 총독들의 반란, 지배층의 분열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이소스 전투)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다리우스 1세가 즉위하여 내란이 진정된 후 수사에 이어서 건설한 수도로, '페르시아의 도시'를 의미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때 소실되었다.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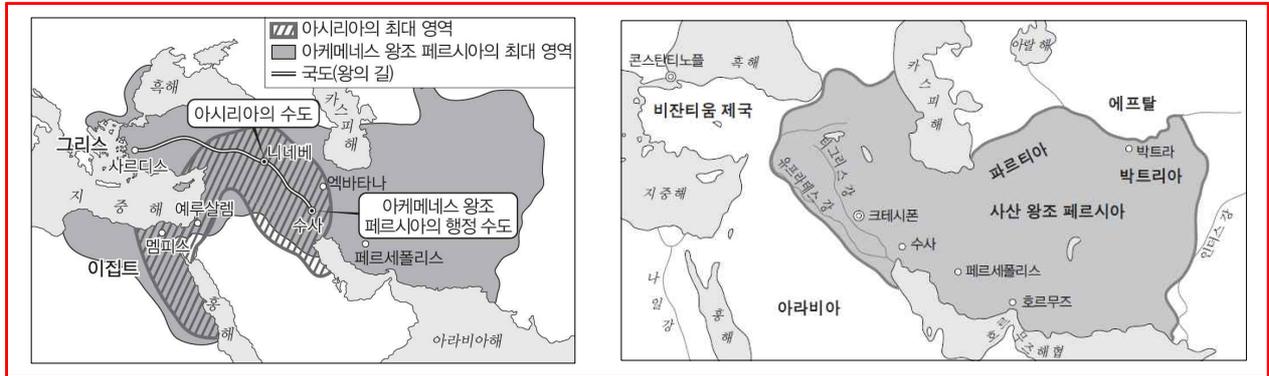
03. 박트리아= 대하국, 기원전 246 ~ 기원전 138)

-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 지배
- 중앙아시아, 인도 북서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 전파

04. 파르티아= 안식국, 기원전 247 ~ 기원후 226)

-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
- 로마 ~ 인도 ~ 한(漢)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 → 사산조 페르시아에 멸망

05. ★사산 왕조 페르시아(226 ~ 651)



- 수도 크테시폰(Ctesiphon)
: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걸고 이란계 민족이 건국, 중앙 집권 체제 강화(지방에 총독 파견)
-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동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

- 페르시아 어(공용어)

- 종교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 경전 『젠드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

↳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티교, 불교 등의 융합

- 문화적 특징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융합 → 국제적 성격

- 건축과 공예

- 다양한 건축 양식이 융합된 건축술과 화려하고 정교한 공예 기술 발전

- 로마, 인도,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

- 멸망

-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왕실의 내분 → 이슬람 세력(사라센)의 침입으로 멸망(651)

▶ 『아베스타(Avesta)』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으로, 아베스타어로 쓰여 있으며, 수백년에 걸쳐 수집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후라마즈다 또는 그의 제령(諸靈)이 예언자 조로아스터에게 계시한 것으로, 우주의 창조, 법, 전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베스타'란 페르시아어로 지식을 의미한다.





아시리아의 라마스상(대영 박물관)



페르가몬 출토 유물(베를린)



수사 궁전 출토 타일(루브르 박물관)

▶ 조로아스터교(『수능 특강』, p.48)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정성 들여 부지런히 땅에 씨 뿌리는 자가 수천 번 기도하여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한 종교적 결실을 얻는다. - 조로아스터

-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 식 발음인데, 20세경에 종교 생활에 입문하여 30세경에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고 한다. **불을 신성시하여 배화교(拜火教)라고도 불렀으며 중국에는 현교(祆教)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유럽어족은 불을 신성시하여 신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불을 피워 재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 역시 인도·유럽어족인 아리아인들의 불을 신성시하는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전 『아베스타(Avesta)』에 의하면 세계 역사는 선·악 양신의 투쟁 과정이며, 인간은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믿음으로써 악신인 아리만(Ahriman)을 이 세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악 양신의 싸움은 선신의 승리로 끝나며,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선신을 믿은 자는 천국에, 악신 편을 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나 최종적으로는 선신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된다고 생각하였다.

- ①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7세기경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가 창시하였다.
- ② 광명의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 아리만과의 투쟁에서 선신이 승리한다는 이원론적 종교이다.
- ③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대신 야외에 성화단(聖火壇)을 만들어 예배한다.
- ④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젠드아베스타』는 AD. 3세기경에 결집된 것이다.
- ⑤ 세계 구원, 불 숭배, 최후의 심판, 사자(死者)의 부활, 구세주 출현 등을 신봉한다.

개념 Check

- ① ()는 기원전 7세기에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 ③ ()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보내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 ④ ()는 페르시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번영하였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 ⑤ ()는 3세기 초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하였다.

01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가)의 국왕은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포위하고서, 성채에 제일 먼저 오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성공하는 병사가 없어 모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히로이아테스라는 자가 홀로 리디아의 경비병이 배치되지 않은 절벽을 기어오르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 올라갔다. 수많은 병사들이 성채에 올라 마침내 사르디스가 함락되었고, 리디아는 멸망하였다.

- ①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 ② 아무르 인에 의해 세워졌다.
- ③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였다.
- ④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0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능 특강』, p.55]

그는 여러 민족을 통합하고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의 속주에 총독을 임명하고 납세액을 정하였다. 키루스와 캄비세스 통치 시기에는 정해진 납세 제도가 없었던 터라 백성들은 그동안 단지 공물만 바쳐 왔다. …… 먼저 이오니아인과 아시아의 마그네시아인, 아이올리스인, 카리아인, 리키아인, 밀리아스인, 팜필리아인 등의 민족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해마다 10.4톤을 바치도록 하였다.

- ①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 ② 데브시르메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왕의 길’이라는 도로망을 건설하였다.
- ④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아 제국을 발전시켰다.
- ⑤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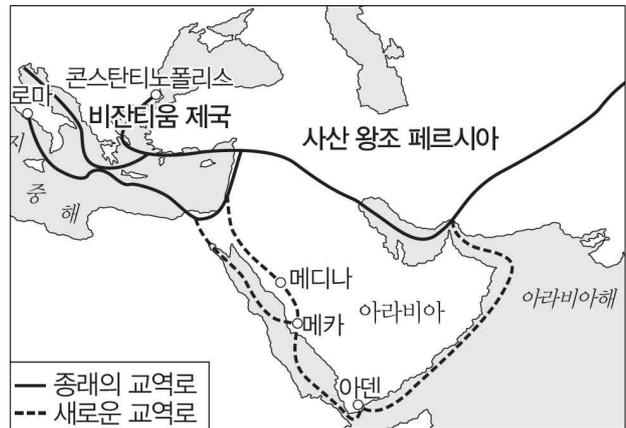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01. 6세기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

- 오아시스 중심
- ↳ 부족 단위의 유목과 농경에 중사

02. 6세기 후반 아라비아 사회

- 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동서 교통의 중심지 차지
 - ↳ 비잔티움 제국과의 갈등 고조
- ② 인도와 중국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역로 차단
 - ↳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에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교역로 활성화**
- ③ 메카·메디나 등의 도시 번영, 빈부 격차 심화, 부족 간 대립 증가, 다신교로 인한 종교적 갈등



<교역로의 변화>

[★이슬람교의 성립과 교리]

01. 성립(610년경)

-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 알리**(570 ~ 632)가 창시
- : 알라(Allah)의 계시
- : 다신교 부정(유일신 알라에 대한 절대복종),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

▶ 이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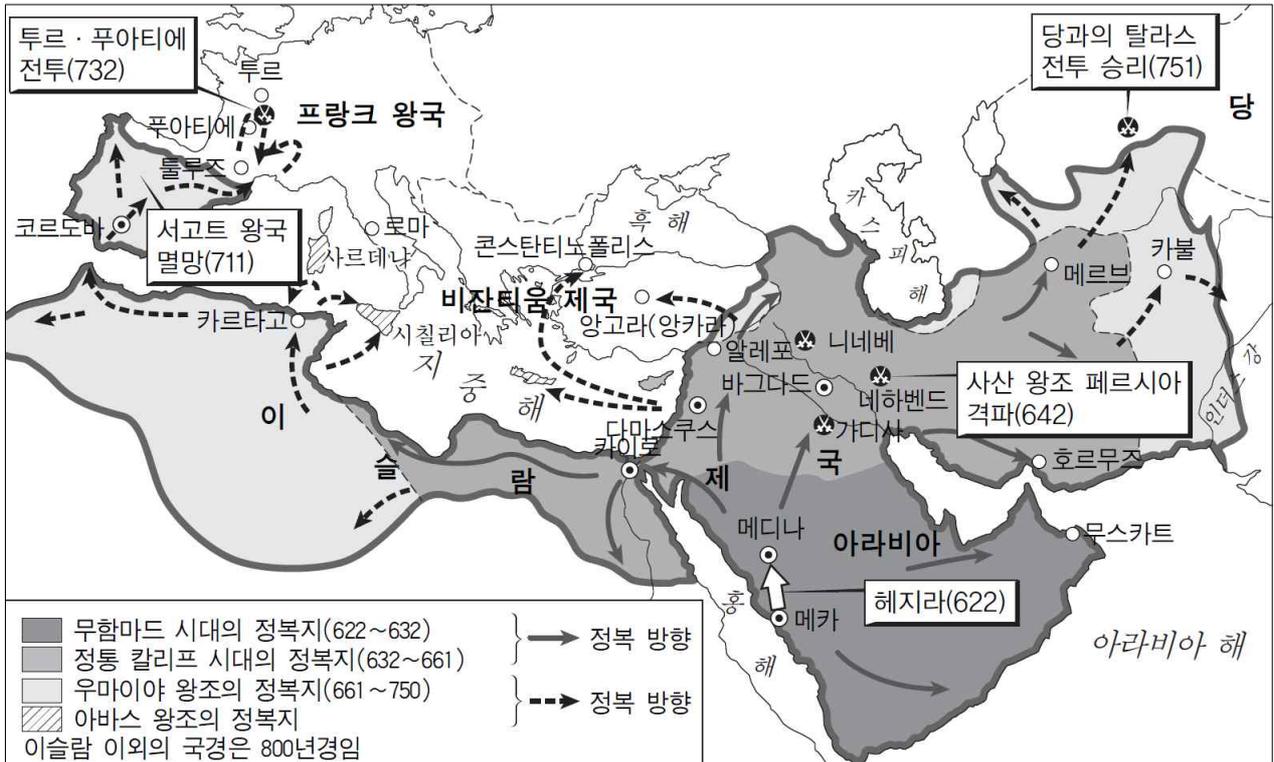
아랍어로 '알라에게 순종함'을 의미한다. 신의 의지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모세와 예수, 그 밖의 예언자들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당신의 신은 하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02. 교리

- 혈연과 인종,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 종교 사상 → 공동체 우선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지향
- 6신(信)
 - ↳ **신(알라)**, 천사(말라이카), **계시(쿠란)**, **예언자(무함마드)**, 내세(심판과 부활), 숙명(예정)
 - ↳ 『쿠란(Quran)』, 경전인 동시에 경제·군사·법률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활 지침서
- 5행(行)
 - ↳ 샤하다(신앙 고백), 살라트(기도), 자카트(자선), **라마단(금식)**, **하지(순례)**
- 포교를 위한 전쟁(지하드) 신성시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01. ★무함마드 시대(610 ~ 632)

- **헤지라**(= 히즈라, 622)
: 쿠라이쉬 족의 박해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야스리브)로 피신
↳ 성천(聖遷, 성스러운 이주), 이슬람력의 기원
- **움마(Ummah, 종교·정치적인 이슬람 공동체) 건설**
: 무함마드가 정치·종교적 수장이 되어 메디나에서 교세 확장
- 메카 탈환(630), **아라비아 반도 장악**, 시리아 원정 도중 후계자 지명 없이 사망(632)

▶ 칼리프(Caliph)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의미로,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배자 역할을 하였다.

02. ★정통 칼리프 시대(메디나, 632 ~ 661)

-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칼리프 선출**
↳ **선출 칼리프 시대**
↳ 아부 바르크(초대 칼리프, 『쿠란』 편찬) → 우마르(지하드 강화) → 오트만 → **시아 알리**
- 본격적인 대외 정복 전쟁
: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정복(651)**
: 예루살렘 점령, 북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이집트 정복**
: 중앙아시아로 세력 확대
- 이슬람교의 확산
: 타종교 인정 → 정복지의 이교도에게 세금 부과
↳ 하라지(지조세), **지즈야(인두세)**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03. ★우마이야(Umaiya) 왕조(661 ~ 750)

- 시아 알리 피살 이후 우마이야 가문에서 배출된 제5대 칼리프 무아위야가 칼리프직을 아들에게 세습
: 세습 칼리프 시대, 다마스쿠스에 도읍
- 카르발라의 참극(680)
↳ 수니파와 시아파 분리
-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
: 동쪽으로는 당(唐)과 접경, 소아시아에서는 비잔티움 제국과 접경
: 북서부 아프리카 점령(8세기 초)
: 이베리아 반도 진출(711)
↳ 투르·푸와티에 전투(732) 패배
: 중앙아시아, 북인도 진출(713)
- 아랍인 우월주의
: 이슬람 교리와 다르게 아랍인을 우대하고 비(非)아랍인 차별

▶ 카르발라의 참극

우마이야 가문에서 배출된 제5대 칼리프 무아위야가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들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칼리프직을 아들인 야지드에게 넘겨주자, 분노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지지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반란 세력은 우마이야 군대에게 카르발라(현 이라크)에서 잔인하게 몰살을 당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알리의 추종자들은 '시아파(시아는 분파라는 의미)'를 형성하였다.

04. ★아바스 왕조(동 칼리프, 750 ~ 1258)

- 아바스 가문과 비(非)아랍계 무슬림들이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고 건국
- 알 만수르(㉔, 재위 754 ~ 775), 바그다드(메디나트 알 살람)에 도읍
- 관료제, 상비군, 군인 노예(맘루크)로 친위대 구성 등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탈라스 전투(對 당, 751) 승리
: 비단길 주도권 장악,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교 확산, 이슬람 세계에 제지술 전파
- 범(凡)이슬람 제국
: 아랍인 우월주의를 폐지하여 아랍인과 비(非)아랍인의 융합 도모
- 지혜의 집(= 화이트 알 히크마) 설립(바그다드, 832)
: 알 마문(㉕, 재위 813 ~ 833),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와 번역 기관
- 이슬람, 그리스, 이란, 인도 문화를 수용한 국제적 문화 발달
- 셀주크 튀르크의 바그다드 입성(1055)
: 술탄의 칭호 부여 → 셀주크 튀르크의 정치적 실권 획득
- 몽골 훌라구의 원정으로 멸망(1258) → 훌라구 울루스(= 일 한국) 성립

▶ 술탄(Sultan)

칼리프의 동의를 받아 지배 지역의 정치와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05. 후(後) 우마이야 왕조(756 ~ 1031)

-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인 압둘 라만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코르도바에 도읍)
- 10세기 전반 칼리프 선언
-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높은 수준의 문화 형성
: 코르도바 메스키타(대성당, 785년경)



<코르도바 메스키타>

06. 그라나다 왕국(1231 ~ 1492)

- 나스르 왕조의 무함마드 1세(재위 1232 ~ 1273) 창립, 알함브라 궁전(1323)
- 크리스티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으로 멸망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 이슬람 세계의 변천



01. 파티마 왕조(909 ~ 1171)

- 시아파, 북아프리카에 건국,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칼리프 선언, 카이로 천도
- 이집트의 플랜테이션과 산업 발전, 유럽 및 인도와 광범위한 교역 연계망 구축
 - ↳ 이집트 산물의 수출 무역 시작
 - ↳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 공화국들과 관계를 맺고 해상 무역 전개
- 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카이로, 970년경)



<알 이즈히르 대학>

02. 부와이 왕조(932 ~ 1055)

- 서부 이란, 10세기 중반 바그다드 점령
- 셀주크 튀르크에 멸망

[튀르크 제국의 출현]

01. ★셀주크 튀르크(1037 ~ 1242)

-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 아바스 왕조의 맘루크(Mamluk)로 활약, 이슬람교로 개종
- 바그다드 입성(1055)
 - ↳ 아바스의 칼리프로부터 **술탄 칭호 획득(정치적 실권 위임)**
- 텐산산맥(東)에서 지중해(西)에 이르는 영토 확보
 - : 예루살렘 점령(1071)
 - :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로 세력 확대
 - :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 격파
 - ↳ 십자군 전쟁(1096 ~ 1270) 유발
- 이크타 제도(Iqta, 분권적 군사 지배 체제) 실시
- 상업·학문 장려, 이슬람 문화 발달
- 십자군 전쟁과 내분으로 제국 분열
 - ↳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1242)



<셀주크 튀르크(수도 코니이)의 발전>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튀르크 제국의 출현]

02. ★오스만 제국(1299 ~ 1922)의 발전

1) 정치

- 오스만 족,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건국
- 비잔티움의 크리스티교 연합군 격파(14세기 말)
: 발칸 반도 장악 → 술탄 칭호 사용
- 앙카라 전투(↔ 티무르, 1402) 패배
- 술탄 메(흐)메트 2세(㉗, 재위 1451 ~ 1481)
: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1453)
↳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스탄불로 개칭
: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 흑해 연안까지 진출
- 술탄 셀림 1세(㉙, 재위 1512 ~ 1520)
: 이집트·시리아의 맘루크 왕조 정복(1517)
: 메카·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
: 아바스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의 칭호 계승 → 술탄·칼리프 제도 확립(1517)
- 술탄 숄레이만 1세(㉚, 전성기, 재위 1520 ~ 1566)
: 동유럽 진출 → 헝가리 정복, 빈 포위 공격(1529)과 실패
: 프레베자 전투(1537)에서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의 연합 함대 격퇴
↳ 지중해 해상권 장악, 동·서 무역의 이익 독점 → 신항로 개척의 계기
- 술탄 셀림 2세(㉛, 재위 1566 ~ 1574)
: 레판토 해전(1571)에서 에스파냐 중심의 크리스티교 연합 함대에 패배 → 지중해 제해권 상실



<오스만 제국의 영역>

2) 사회·군사

- 티마르 제도(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실시
: 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티마르) 부여
- 밀레트 제도
: 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 예니체리(Yenicheri, Janissary, 1330 ~ 1826)
: 새로운 군대(튀르크 어), 술탄의 친위 부대
- 데브시르메 제도 → 크리스티교도 소년 징집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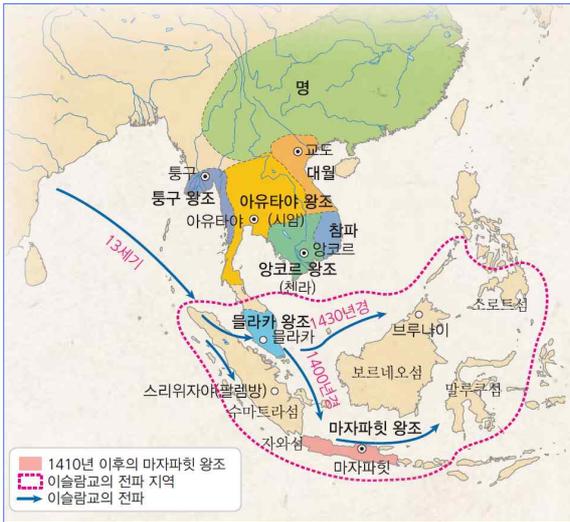
3) 문화

-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페르시아·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융합
↳ 톱카프 궁전(1467) 숄레이만 사원, 술탄 아흐메트 사원(블루 모스크) 건축
- 천문학·수학·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
- 이란의 전통 위에 궁정 문학 및 튀르크 민중 문학 발전, ex)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
- 아라베스크 무늬 발달,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세밀화 유행



▶ 이슬람 세력의 동남아시아 진출

믈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해상 교역로였다. 14세기에 성립한 믈라카 왕조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믈라카 왕조는 정화의 항해(1405 ~ 1433)를 계기로 명과 조공 무역을 시작했으나 명이 대외 교역을 제한하자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을 확대했고,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중계 무역하면서 1511년까지 번영하였다.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년)
인도 차이나 반도	미얀마	파간	분열기	통구	곤바웅			
	캄보디아	앙코르		베트남, 라오스, 태국의 간섭과 지배				
	베트남	북부	전	레	응우옌			
		남부	참파					
	태국	수코타이	아유타야		짜끄리			
라오스	란창							
도서 지역	말레이시아	믈라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				
	인도네시아	마자파힛		마타람		네덜란드의 지배		

●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으로, 코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 힌두 문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 이슬람 세력의 아프리카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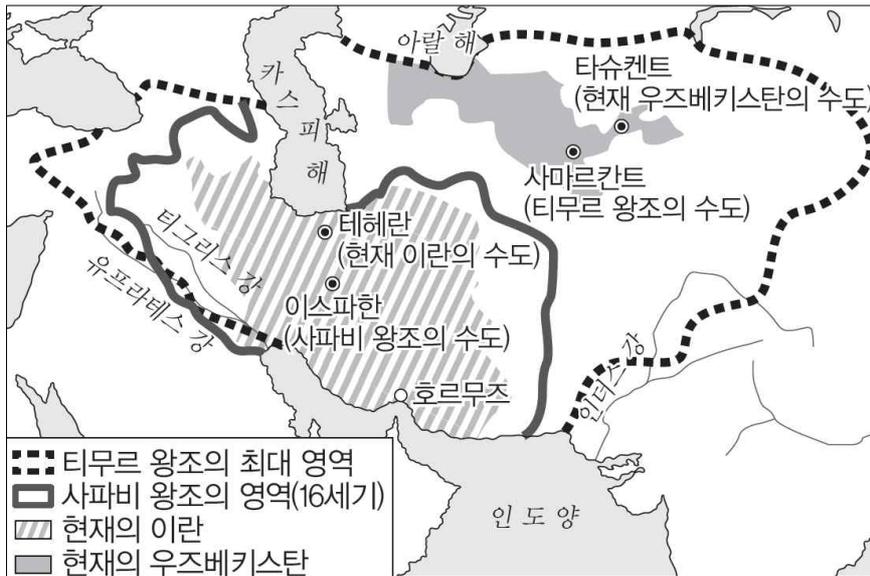


● 맘루크 왕조(1250 ~ 1517)

- 이집트, 시리아 일대 통치
- 맘루크(노예 용병)의 지배
- 몽골군 격퇴, 메카·메디나 보호
- 지중해, 인도양 무역
- 오스만 튀르크의 셀림 1세에게 멸망



▶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01. ★티무르 왕조(1370 ~ 1500)

- 티무르(1336 ~ 1405)
 - :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정하고, 트란스옥사니아를 지배한 차가타이한국 계승
 - ↳ 몽골 제국의 부활 표방
 - : 투르키스탄과 러시아, 이란, 카프카스 원정
 - : 앙카라 전투(1402)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
- 명(明) 원정 도중 티무르 병사
 - : 후계자 자리를 두고 네 아들 간에 분쟁 발생
 - : 튀르크 계통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 동서 무역 주도

02. ★사파비 왕조(1501 ~ 1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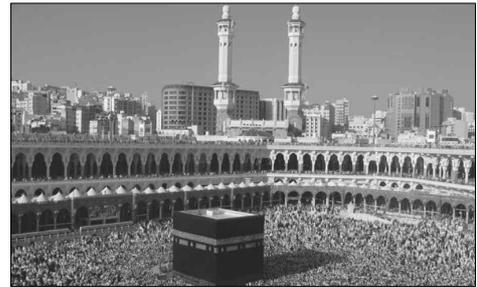
- 이스마일 1세(㉠, 재위 1501 ~ 1524)
 - :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 수도 타브리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함
 - :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 사용
- 아바스 1세(㉡, 재위 1588 ~ 1629)
 - : 이스파한 천도(1597)
 - :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 국유화
 - :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체류 허용
 - : 유럽 주요 도시에 상인 파견
- 수니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
-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아프간족의 침입 등으로 쇠퇴 → 멸망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사회 · 경제]

01. 사회

-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지배 → 정교일치
- 신 앞의 평등 → 무슬림(Muslim)
- 순교자 찬미, 불경한 자는 징계 → 전투력 증강의 배경
- 일부다처 허용,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식생활
- 지즈야(Jizyah)를 거두는 대신 피지배 민족의 종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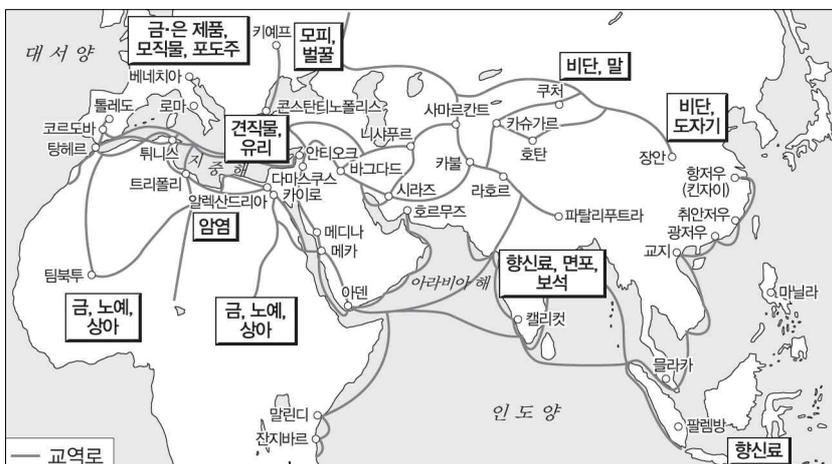
<메카에 있는 키바 신전>

02. 경제

-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 : 상인 성장, 교역로를 중심으로 메카 · 메디나 · 바그다드 · 코르도바 등 상업 도시 발달
- 대상 무역
 - : 낙타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까지 왕래
- 해상 무역
 - : 동아프리카 · 인도 ·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바닷길 교역 주도
 - : 다우선 이용
 - : 중국의 비단 · 도자기, 인도의 향료 · 면직물, 동남아시아의 향료 등을 중계
- 신용장 · 어음 · 수표 등 제작, 군대를 고용하여 안전 확보, 수공업자 동업 조합 결성

▶ 다우선

돛대가 1개 또는 2개인 아랍의 범선. 보통 경사지고 삼각형으로 된 큰 돛을 달며, 홍해나 인도양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 상업 발달의 배경

- ① 이슬람법으로 상업 보호
- ② 상인 존중 풍토
- ③ 도시 발달
- ④ 정복 활동과 교역로 확보
- ⑤ 정부 주도의 시장 운영
 - : 바자르(= 수크)
- ⑥ 정부의 도로망 관리
- ⑦ 낮은 세금 제도
- ⑧ 화폐 발행과 통용
- ⑨ 공통 언어인 아랍어 사용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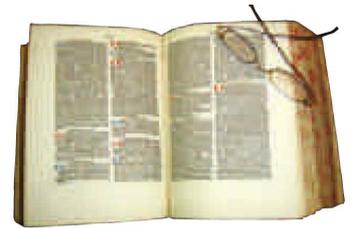
[이슬람 세계의 문화]

01. 특징

- 동·서 문화 융합
: 그리스, 인도, 이란, 중국 등 각지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이슬람교의 체계 속에 재편성
: 동서 문화 교류에 이바지
- 이슬람 문화권 형성
: 이슬람교, 『쿠란』, 아랍어 등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
: 알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 때문에 『쿠란』 번역의 원칙적 금지
- 유럽의 근대 문화 발달에 기여
: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자연 과학의 수용과 발전 → 유럽에 전달
: 중국의 제지술, 나침반, 화약, 인쇄술 등을 유럽에 전달 → 르네상스 자극

02. 자연과학과 의학 발달

- 자비르 이븐 하이안(721 ~ 815)
: 근대 화학의 아버지이자 근대 약학의 기초 확립
: 여과, 증류, 승화 등의 실험 방법 확립
- 알 콰리즈미(780 ~ 850)
: 대수학의 아버지, 인도의 수 개념과 10진법 대중화
: 알고리즘(Algorism)의 유래
- 이븐 시나(980 ~ 1037)
: 이슬람 의학을 집대성한 『의학정전(의학전범)』 저술
- 알 이드리시(1099 ~ 1166)
: 15년에 걸친 연구 끝에 세계 지도 제작
↳ 직사각형에 본문이 첨가된 70매의 지역 세분도로 구성
- 알 투시(1201 ~ 1274)
: 생물학과 천문학 연구, 생물학적 진화론 설명



▲ “의학전범” 대표적인 이슬람 의학자 이븐 시나가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하였다. 이븐 시나는 처음으로 병리 및 심리상의 여러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03. 학문

- 『쿠란』의 연구 및 적용 → 신학과 법학 발달
-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 → 유럽 중세 스콜라 철학의 성립에 영향
- 『역사서설』(이븐 할둔), 『여행기』(이븐 바투타), 『아라비아안나이트』(여러 지역의 설화 재구성)

04. 예술

- 모스크(꽃어 앞드려 경배하는 곳) 건축
: 비잔틴 양식 + 사산조 페르시아 건축 양식 + 돔(둥근 지붕)·첨탑(미나레트, minaret)
- 조형 미술의 쇠퇴
: 우상 숭배 금지로 그림·조각 발달 미약 → 아라베스크 문양 발달



▶ **데브시르메 제도와 에니체리**



술탄은 장관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 논의 내용은 미래를 위해서 **비(非)이슬람교도의 자녀들 중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용감하고 부지런한 젊은이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고 …… 이것은 그들을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었고, 비(非)이슬람교도를 복속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

- 버나드 루이스, 『중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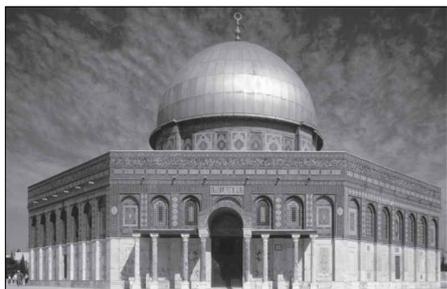
▶ **이슬람 상인의 해외 활동**

- ① “돈을 꾸거나 빌려줄 때는 기록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증인을 세우며, 기록인과 증인에게 강제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나는 페르시아 유황을 중국에 가지고 가려하네. 중국에서는 그것을 비싸게 팔 수 있거든. 그리고 중국 도자기를 소아시아의 나라들로 가서 팔고, 그 지역의 비단을 인도로 가서 팔고, 인도의 면화를 시리아로, 예멘 산 줄무늬 직물을 페르시아로 가지고 갈 거라네.



<이슬람의 대상>

▶ **이슬람의 문화**



<비위의 돔 모스크(예루살렘)>



<솔탄 이즈메트 시원>



<이리베스크 문양>

구분	아랍어	영어
알코올	Al-kohl	Alcohol
알칼리	Al-qaliy	Alkali
대수	Al-Jabr	Algebra
알고리즘	Al-Khawarizmi	Algorism

<이람어에 기원을 둔 과학 용어>



<이슬람 문화권>

개념 Check

- ①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층의 박해로 메디나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라고 한다.
- ②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로 ()를 선출하여 정치·종교적 대권을 맡겼다.
- ③ 제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 왕조가 수립된 이후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 ④ 우마이야 왕조 멸망 뒤 그 일파는 () 반도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여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 ⑤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에 입성한 뒤 ()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였다.
- ⑥ () 왕조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여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하였다.
- ⑦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군주 칭호인 ()를 사용하였다.
- ⑧ 오스만 제국은 () 전투에서 티무르의 군대에 패하여 타격을 받았지만 곧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⑨ 오스만 제국의 ()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 ⑩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술탄의 친위 부대인 ()를 육성하였다.
- ⑪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교 경전인 『_____』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
- ⑫ 이슬람 문학으로는 여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한 『_____』가 유명하다.
- ⑬ 이슬람 건축에서는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주축을 이루었고, () 무늬가 사용되었다.

실전문제

01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유목민 일파가 니샤푸르와 이스파한 등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와이 왕조와 대결하였다. 그 후 이 일파는 바그다드로 입성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다.

- ①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 ② 사파비 왕조와 전투를 벌였다.
- ③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대결하였다.
- ④ 소아시아(아나톨리아)로 진출하였다.
- ⑤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며 이스파한으로 천도하였다.

0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9월 모의평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

• 등재 연도: 2007년

• 건축 연도: 1577년



보스니아 출신의 소콜로비치는 (가)에 의해 강제 징제 되어 드리나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없어 고생하였다. 예니체리가 되어 출세를 거듭한 후 1565년 대제상이 된 그는, 드리나 강을 건널 당시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다리를 건설하였다. 이 다리는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보 안드리치의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의 주요 소재이다.

- ① 마라타 동맹을 탄압하였다.
- ②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③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 ④ 탄지마트(은혜개혁)를 추진하였다.
- ⑤ 바그다드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다.

03

(가) 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수능]

□ (가) 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제국의 수도로 삼고 국제 무역 도시로 더욱 발전시켰다. 수도에는 여러 나라의 물품을 교역하는 바자르(시장)가 발달하였는데, 향신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도 있었다. 또한 밀레트 제도가 시행되어 비(非)이슬람교도들도 납세의 의무만 지키면 자치를 누렸다.

- ① 파르티아의 멸망 원인을 조사한다.
- ② 아이바크 왕조의 개창 배경을 분석한다.
- ③ 이븐 시나의 『의학전범』 편찬 계기를 알아본다.
- ④ 술탄 아흐메드 사원의 건립 목적을 파악한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04

(가), (나) 시기 사이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은?

(가)

(나)



- ① 셀주크 튀르크가 바그다드를 정복하는 장면
- ②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
- ③ 옴미야드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는 장면
- ④ 이슬람교도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는 장면
- ⑤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침입하여 이슬람 왕조를 건설하는 장면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오스만 제국(1299 ~ 1922)의 쇠퇴와 근대화 운동]

01. 제국의 쇠퇴

- 영국, 러시아의 압박 등 오스만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격화
- 영토 대부분 상실
- : 그리스 독립(1829), 이집트의 자치 허용, 세르비아 등 속주의 반란

02. ★근대적 개혁 운동

1) 탄지마트(= 은혜개혁, 1839 ~ 1876)

150년에 걸친 여러 사건과 갖가지 분규가 이어져 성스러운 법과 그에 따른 준칙에 대한 복종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오스만 왕조의)세력과 번영은 사라져 힘없고 가난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 우리는 오스만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주에 대해, 훌륭한 통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

1. 술탄의 권한 일부를 입법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서 법을 제정한다.
2. 이슬람교도와 비(非)이슬람교도는 법률 안에서 평등하다.
3.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한다.
4. 누구나 공개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5. 세금 징수 제도를 제정하고 세금 징수 청부 제도를 없앤다.
6. 지방 장관에 대해서는 급료를 주고, 지방민에게 임의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 탄지마트를 위한 장미의 방 칙령(1839)

• 미드하트 헌법 제정(미드하트 파샤, 1876)

: 제국 의회(상원 · 하원) 개설

: 내각책임제 실시

: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보수 세력의 반대, 제6차 러시아 · 튀르크 전쟁(1877 ~ 1878)의 패배로 실패

: 술탄 압둘하미드 2세(㉔), 재위 1876 ~ 1909

↳ 법이슬람주의 → 자유주의 탄압, 전제 정치 강화



미드하트 파샤
(1822 ~ 1883)

2) 청년 튀르크 당의 입헌 혁명(제2차 입헌 운동, 1908년)

배경	• 러시아 · 튀르크 전쟁 패배 이후 술탄의 전제 정치 강화
	• 젊은 지식인, 장교 주도로 청년 튀르크 당 결성(1889)
	• 청년 튀르크 당의 입헌 정치 요구
개역	• 지식인, 관료, 장교들이 무장 혁명을 통해 정권 장악
	✓ 헌법(입헌 정치) 부활, 여성 차별 철폐, 근대 시설 확장, 교육과 세제 개혁 추진
인계	•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 여러 민족의 독립 운동 탄압으로 피지배 민족의 반발 초래
	•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오스만 제국이 붕괴될 때 함께 해체(1922)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아랍 세계의 각성]

01. 배경

- 오스만 제국, 이란 카자르 왕조(1794 ~ 1925)의 지배
- 18세기 이후 유럽 열강의 아랍 세계 침략



02. ★와하비(와하브) 운동

- 아라비아 반도
- 압둘 와하브(1703 ~ 1792)
 - : **이슬람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
 - :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성장
 - : 제1차 사우디 왕국(1774 ~ 1818) 건설 → 이집트의 무함마드에 정복 →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

▶ 외이브 운동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는 이슬람 세계에 스며든 신사조를 배척하고, 초기 이슬람교(무함마드 이후 300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이슬람 순화 운동**을 일으켰다. 아랍 인들은 금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속적인 제국주의와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복고적 경향은 현대에 이르러 아랍 세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이란인 민족 운동]

01. 배경

-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 투르크만차이 조약(카자르 왕조 ~ 러시아, 1828) 체결
 - : 영·이란 통상 조약(1841)
- 나세르 알 딘 샤(재위 1848 ~ 1896)
 - : 영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담배 전매 독점권 부여(1890)**

02. 개혁 운동

- **아프가니(1838 ~ 1896)**의 담배 독점권 반환 주장
 - : 상인, 이슬람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담배 이권 수호 운동(담배 불매 운동, 1891)** 전개
 - : 왕과 외세를 반대하는 저항 운동으로 발전 → 담배 독점권 회수
- 입헌 혁명(1905 ~ 1908) → 국민 의회 소집과 **헌법 제정(1906)**
 - :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전제 세력의 의회 포격과 입헌 운동 무력 탄압(1908. 6월)

03. 한계

-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협정(1912)**으로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수능 특강』 단독 기술 NO!!)

[이집트의 개혁]

01. 무함마드 알리(1769 ~ 1849)

- 오스만 제국을 도와 프랑스 격퇴 → 이집트 태수로 임명(1805)
- 적극적 근대화 정책 추진

개역	• 근대적 육군·해군 창설, 산업 장려, 조세와 토지 제도 개혁, 교육과 행정 개편
외교	• 와하브 왕국 정복(1818) • 그리스 독립 전쟁(1821 ~ 1829) 때 오스만 제국 지원 → <u>자치 획득(1829)</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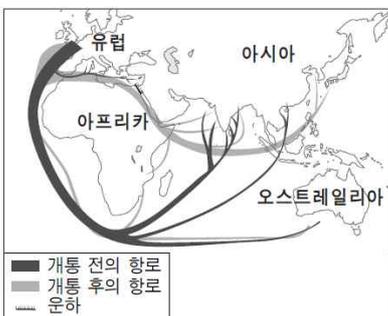


▲아프가니의 범(凡)이슬람 운동

02. 아라비 파샤(1841 ~ 1911)의 민족 운동

-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주장하며 반영 운동 전개

배경	• 수에즈 운하 건설(1869) 과정에서 경제적 종속 심화 • 영국의 수에즈 운하 운영권 장악(1875)
역명 주도	• 아라비 파샤의 군부 세력이 입헌제 확립을 요구하며 혁명 주도(1881)
결과	•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영국의 개입으로 실패 →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1882)



▶수에즈 운하

- ① 1871년 12월 24일 카이로 극장에서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가 상연되었다. 여주인공 아이다와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아이다>에서 이집트 군이 개선하는 극적 결말처럼 결국 수에즈 운하는 유럽 열강들의 손에 넘어가 이집트의 반(半) 식민지화를 가져 오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②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길이 168km의 운하이다. 1859년 프랑스의 레쎬스가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로부터 운하 건설 특허를 받아 시작된 운하 건설은 1869년에 완성되었다. 수에즈 운하의 건설로 유럽의 인도 항로가 1만km 이상 단축되어 유럽과 인도 및 중국에 이르는 무역의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개념 Check

- ① 오스만 제국에서는 열강의 압박 속에서 탄지마트 개혁을 추진하였고, ()의 주도로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정치를 추구하였다.
- ② 1908년 ()이 입헌 혁명을 일으켰으나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받았다.
- ③ 유럽 열강이 아랍 세계를 침략하자 ‘쿠란으로 돌아가라!’라는 구호 아래 이슬람교 순화 운동인 ()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아프가니는 ()에서 담배 독점권 반환 촉구 운동을 호소하였다.

실전문제

01

다음의 헌법이 제정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술탄의 권한 일부를 입법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서 법을 제정한다.
-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상원 의원은 술탄이 임명한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한다.

- ① 청년 튀르크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 ② 영국이 담배 제조와 판매 권한을 독점하였다.
- ③ 영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압박이 심하였다.
- ④ 발칸 전쟁에서 패하여 국제적 지위가 추락하였다.
- ⑤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 지대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02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 특강』, p.138]

이 사진에는 1908년 오스만 제국의 젊은 지식인과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무장봉기하였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 단체는 어떤 개혁을 추진하였을까요?



- ① 헌법을 부활하였어요.
- ②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였어요.
- ③ 와하브 운동을 전개하였어요.
- ④ 스와라지, 스와데시 운동을 추진하였어요.
- ⑤ 영국의 이권 침략에 맞서 담배 불매 운동을 벌였어요.



시대	시대 특징	
	정치 · 경제	시·문 ·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지형 구조★ • 이민족의 침입 빈번, 여러 왕조 흥망 ↳ 수메르 → 아카드 → 아무르 → 히타이트 • 신정 정치(지구라트)★ • 히타이트(철기), 페니키아(카르타고)★ • 헤브라이인(유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세적 다신교 • 농업·상공업 발달, 다른 지역과 교역 • 점토판을 이용한 췌기문자(설형문자)★ • 함무라비 법전(보복주의, 계급주의)★ • 60진법, 태음력, 점성술 유행, 천문학 발달 • 길가메시(우르크 왕) 서사시★
고대 서아시아 세계	① 아시리아(최초 오리엔트 세계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네베, 점령지에 대한 가혹한 통치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루스 2세★ : 서아시아 재통일, 이민족에게 관용 정책 • 다리우스 1세★ : 역참제 정비, 총독과 감찰관(왕의 눈, 왕의 귀) 파견,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이소스 전투)으로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 사르디스(왕의 길) • 페르세폴리스 건설 : 다리우스 1세 • 그리스, 이집트 등의 다양한 문화 반영 • 조로아스터교 신봉★
	③ 사산왕조 페르시아(226 ~ 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에 이르는 제국 건설 • 동서 교통의 요충지 장악, 중계 무역 번성 • 비잔티움과 전쟁, 이슬람 세력에 멸망(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융합 • 미술, 공예(금속·유리) 분야 발달 • 조로아스터교(국교)★, 『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
이슬람세계의 형성과 확대	① 무함마드 시대(610 ~ 632) : 헤지라(622) ② 정통 칼리프 시대(632 ~ 661) : 이집트 정복 ③ 우마이야 왕조(661 ~ 750) : 세습 칼리프 ④ 아바스왕조(750 ~ 1258) : 아랍인 특권 폐지 ⑤ 후우마이야 왕조(756 ~ 1031) : 코르도바 ⑥ 셀주크 튀르크(1037 ~ 1242) • 아바스로부터 술탄의 칭호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신 알라 숭배, 만민평등, 우상숭배 배격★ • 상업 보호, 상인 존중, 상업과 도시 발달 • 자연과학 발달(연금술)★ • 그리스 철학 연구 → 중세 스킴라 철학 성립 • 모스크, 돔·첨탑, 아라베스크 문양★ • 그림, 조각 등 조형 예술의 발달 미약★ • 세밀화 발달
서아시아 전통사회의 발전	① 티무르 왕조(1370 ~ 1500) • 사마르칸트, 몽고 제국의 부활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문화의 교량적 역할 • 이슬람 + 페르시아 + 튀르크 문화
	② 오스만 제국(1299 ~ 1922) • 비잔티움 제국 멸망(메흐메트 2세, 1453)★ : 콘스탄티노폴리스(이스탄불)를 수도로 삼음 • 맘루크 왕조 정복(셀림 1세) • 헝가리 정복·프레베자 전투(솔레이만 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탄·칼리프 제도(정교일치) 확립(1517)★ • 티마르 제도(군사적 봉건제) 실시★ • 레판토 해전 패배(1571) → 지중해 교역 상실 • 데브시르메 제도와 예니체리★, 시파히 제도 •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 솔레이만 사원
근대화 운동	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지마트(은혜개혁, 1839 ~ 1878) → 제6차 러·튀 전쟁(1877 ~ 1878)의 패배로 실패★ • 청년 튀르크당의 정권 장악(1908) → 헌법 부활, 여성 차별 철폐, 근대 시설 확장 등의 개혁 ② 와하브 운동(압둘 와하브, 『쿠란』으로 돌아가라!) → 와하브 왕국 건설 → 오스만에 의해 멸망 ③ 이란 아프가니의 담배 독점권 반환 촉구 운동, 입헌 운동과 헌법 제정(1906)	
현대	① 팔레스타인 문제 → 맥마흔 선언(1915),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 벨푸어 선언(1917)★ ② 무스타파 케말, 터키 공화국(1923) ③ 이란 → 팔레비 왕조(1925 ~ 1979) ④ 이라크 → 이라크 왕국(1932 ~ 1958)	